



**현대모비스, 정규 양궁교육 스타트** 현대모비스는 올해 인터넷으로 공개 모집한 어린이 20명을 1기 '주니어 양궁 꿈나무'로 선정하고 연말까지 총 4회에 걸친 전문 양궁 수업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2년간 시범적으로 시행한 '주니어 양궁 교실'의 경험을 살려 체계적인 정규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전직 국가대표 출신의 주현정 선수가 주니어 양궁 꿈나무교실 참가 학생들에게 양궁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모비스



**롯데백화점, 파트너사와 1박2일 '힐링캠프'** 롯데백화점이 11월 6, 7일 이틀 동안 롯데속초 리조트에서 중소 파트너사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2019 파트너사 힐링캠프'를 진행한다. 6년째를 맞은 '2019 파트너사 힐링캠프'는 2014년에 시작한 이래로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된다. 실제로 지난 해에는 상품군의 구분 없이 모든 파트너사가 한 차례 모여 행사를 진행했지만, 올해는 240여개의 파트너사를 상품군별로 나누어 롯데백화점 바이어와 매칭을 했고 11월 말까지 총 세 차례로 운영한다. /롯데쇼핑

## CJ제일제당 '지속가능경영대상' 부문 대상

CJ제일제당이 지난 30일 서울 흥동 그랜드힐튼 호텔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2019 글로벌스탠더드경영대상(GSMA)'에서 '지속가능경영대상'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31일 밝혔다.

CJ제일제당은 농가, 중소기업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산업 생태계를 만들고, 친환경 발효 공법 등을 활용해 환경 오염 방지에 기여하는 등 사회적 가치 발굴 및 지속가능경영을 이룩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박인용 기자



지난 30일 진행된 '2019 글로벌스탠더드경영대상'에서 정길근 CJ제일제당 부사장(왼쪽)이 '지속가능경영대상' 대상 수상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CJ제일제당

## KT&G '제10회 상상실현 콘테스트' 접수

3·1운동, 임정 100주년 기념 대한민국 희망 메시지 전달

KT&G가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고 미래 대한민국을 위한 희망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제10회 상상실현 콘테스트'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콘테스트는 '대한민국, 위대한 상상을 잇다'를 주제로 독립의 역사와

의의, 교훈을 되새길 수 있는 작품이 공모 대상이며,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응모 가능하다.

응모방법은 12월 1일까지 참가자 개인 소셜 네트워크 계정에 제작한 작품을 게시하고 온라인 접수 페이지를 통해 작품 URL을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이메일로 직접 접수하면 된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CJ CGV, 자원봉사 부문 서울시장상 수상** CJ CGV는 지난 30일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컨벤션홀에서 열린 '2019 서울시 푸드뱅크마켓 감사의 밤'에서 서울시장상을 수상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CJ CGV는 자원봉사 부문 서울시장상을 수상하며 임직원들이 펼쳐온 나눔 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성진 CJ CGV 전략지원담당(왼쪽)이 2019 서울시 푸드뱅크마켓 감사의 밤에서 김원이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시장상을 수상하고 있다. /CJ CGV



강형문의 세상읽기

최근 일부 은행에서 발생한 'DLS사태(파생금융상품의 대규모 원금손실 발생)'로 금융인의 윤리의식 강화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은 신용을 전제로 성립한다. 금융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선순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금융활동에 관여하는 당사자 간의 신용이 높아야 한다.

금융산업이 발달한 선진국일수록 고객 스스로 신용을 중시하고 또 금융회사도 고객의 신뢰를 잃는 것을 두려워한다. 따라서 금융은 신뢰라는 윤리의 덕목이 가장 중요시되는 분야이다. 이번 금융권에서 발생한 DLS사태는 아무리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직원들에 대한 윤리교육을 의무화 하더라도 지식의 습득을 실천에 옮기는 의식의 변화 없이는 윤리의식부재로 인한 금융사고(윤리적 리스크)가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다시 깨닫게 해주고 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금융회사의 윤리의식 부재로부터 야기됐다는 지적이 제기된 이후 세계 각국은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배구조 개선,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윤리교육 의무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우리나라도 이에 맞

## 금융인의 윤리

춰 금융윤리규범을 제정(2015년)하고 금융업권별로 윤리헌장과 표준윤리강령을 만들어 이를 내부경영에 반영, 실천토록 했으며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윤리교육도 강화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 이후 3대 카드사의 개인정보 불법유출,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배당사고, 은행권에서의 대출금리 조작사건 등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번번히 일어났으며 특히 근래에 들어서는 금융사고가 제도나 법제두리내에서 이뤄지는 비윤리적 행위(예측·관리·통제가 쉽지 않음)가 늘어나고 있어 이제는 제도개선과 금융감독 강화만으로 금융인의 윤리의식 부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앞으로 금융혁신(디지털금융의 확산)의 지속으로 금융업무는 보다 전문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금융회사와 고객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이 커져 금융회사내에서의 윤리적 리스크(회사이익을 위한 비윤리적행위를 묵인하는 풍토 등)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미래에 보편화될 AI시대(인공지능시대)에서 만약 AI기술을 악용(그릇된 가치관을 AI에 반영) 한다면 이는 금융의 신뢰성을 심각히 훼손시킬 뿐 아니라 우리사회 전반에 큰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다가올 AI시대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올바른 가치관과 윤리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이번 금융권에서 발생한 DLS사태를

계기로 금융감독당국이 조만간(11월 중)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고위험금융상품의 은행판매제한, 투자숙려제도 등)을 발표한다고 한다. 그러나 급속히 진화하는 금융업무의 특수성과 미래 보편화될 AI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선 이러한 제도개선과 함께 금융 윤리교육이 습득된 지식을 통해 태도와 행동이 변화할 수 있도록 새롭게 바뀔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영국의 대형은행에서 시행되고 있는 금융인 윤리자격증 제도는 좋은 예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동 제도는 은행원을 대상으로 금융윤리교육을 실시(스코틀랜드금융연수원이 주관)하고 교육이수 후 평가(매일 매일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갖추어야 할 업무태도, 가치관, 행동양식, 전문소양)를 통해 개별은행과 은행원에게 윤리규범 인증서를 발급한 후 이를 잘 지키는지 여부를 감독하는 제도로서 동 자격을 보유한 자(2015년말 현재 약 7만 여명)는 은행 산업에서 필요한 세부 전문지식과 윤리성을 겸비한 최고의 금융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이제 금융산업이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윤리적 행동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금융인들에게 윤리란 추상적인 도덕이 아닌 꼭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덕목으로, 끊임없는 반복적 교육과 감독을 하는 새로운 윤리교육시스템이 절실히 요구된다.

/전 한국금융연수원장-메트로신문 전문위원

## 맨손으로 난동제압 20대 청년들에 'LG의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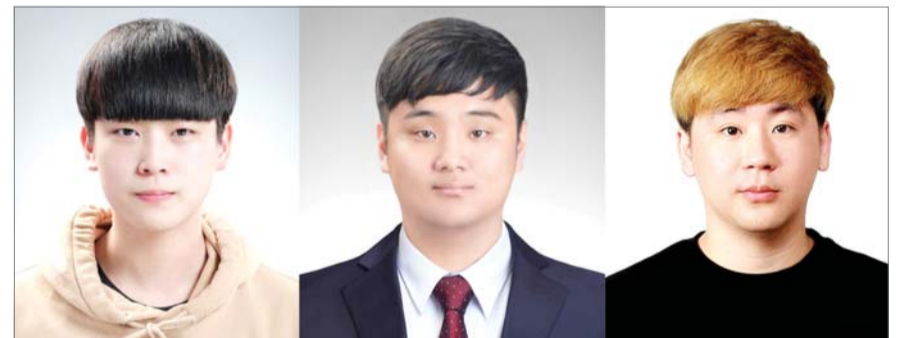
진중현·변정우·정규철 씨 3명

맨손으로 흥기난동범을 제압한 청년들이 LG 의인상을 받게 됐다.

LG복지재단은 10월 31일 진중현 씨와 변정우 씨, 정규철 씨 등 20대 청년 3명을 새로운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진 씨와 변 씨는 지난 6일 강원도 강릉에서 휴대전화 매장 직원을 칼로 찌른 50대 남성을 제압해 경찰에 인계했다. 다친 직원에 응급조치로 병행해 생명을 구해내기도 했다.

정 씨도 22일 서울 봉천동 한 PC방에



LG의인상 수상자들. (왼쪽부터) 변정우 씨, 진중현 씨, 정규철 씨. /LG

서흥기로 아르바이트생을 위협하는 범인을 몸싸움 끝에 제압했다. 아르바이트생도 다치지 않았다.

LG복지재단 관계자는 "큰 부상을 입

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맨손으로 흥기에 맞선 청년들의 의로운 행동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 인사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장 임호근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과장 현수업

◆**한국관광공사** △전보 및 보직 변경 △국내디지털마케팅팀장 김경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과장급 임용 △예금사업단 예금위험관리과장 오창수

◆**특허청** (전보) △융복합기술심사국장 이현구 △전기통신기술심사국장 최규 △화학생명기술심사국장 권오희 △기계계측기술심사국장 류동현

◆**중추시** (전보) △5급 △시설관리공단(파

견) 김진수 △상수도과장 이광우 △양성면장 정지용 △6급(팀장) △신성상전략과 산업단지관리팀장 조용범 △관광과 온천관광개발팀장 유현진 △상수도과 수도시설팀장 민경상 △" 수도요금팀장 원종순 △" 수도관리팀장 이상하 △" 정수팀장 최승희 △" 시험팀장 김충래 △하수와 수안보팀장 이종욱 △살미면 개발팀장 장용선 △동량면 개발팀장 이준희 △염전면 주민복지팀장 신현욱 △소태면 개발팀장 이경우

◆**안동시** (전보) △4급 △의회사무국장 임중환

◆**한국전문연구원** △감사부장 신용태 △행정부장 윤영재 △이론전문센터장 조정연

◆**한국금융연구원** △보직발령 △가계부채

연구센터장 임진

### 부음

▲정의한씨 별세·김준일 소영 모친상·박정원(두산그룹 회장) 빙모상=10월 31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일 오전 6시40분. 02-3010-2631

▲정보 별세, 박정순씨 남편상, 정경희(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상문(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장)-상태씨(LG전자 칠러파트장) 부친상, 이경수씨(심택홀딩스 전무)장인상, 문완숙·박사랑씨(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시부상=31일,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1월2일 9시. 02-3010-2231